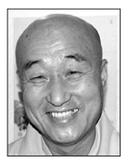
일 주 문

의천 스님 열반 다례재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11월 14일 오전 11시 개성 영통사에서 6 · 15공동선언 실천, 대각국사 의천 스님 열반 다례재 법회를 개최한다.

성철 스님 14주기 추모 학술회의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11월 21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성철 스님 열반 14주기 추모 학술회의를 개최한다.(02)2198-5372



특전사령관 취임법회
조계종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은 11월 4일 특전사 호국사자사에서 특전사령관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어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군종병 집체교육을 실시했다.

남양주불교환경연대 창립식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은 11월 17일 오후 1시 남양주 묘적사 대웅전에서 남양주불교환경연대 창립식을 봉행한다. (02)720-1654

인천 황룡사 창건 1주년 법회
인천 황룡사 주지 무원 스님(천태종 총무부장)은 11월 4일 '황룡사 창건 1주년 및 신도회 창립 3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12회 명원국제차문화대상
명원문화재단 김의정 이사장(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11월 6일 서울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2회 명원국제차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행복명상 프로그램 실시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은 11월 16일 남양주 오덕훈련원에서 '나와 세상을 돕는 어머니들의 행복명상'을 실시한다. (02)722-2101

'생명생태윤리 시각에서 본 방송' 세미나
사단법인 보리 김재일 회장은 11월 9일 서울 미디액트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생명생태윤리 시각에서 본 오늘의 방송'을 주제로 방송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사

■ **불교TV** 불교TV는 11월 5일자로 방송본부 제작국 제작부서장 제도를 책임프로듀서인 CP제로 전환하고 제작CP 인사를 단행했다.
△방송본부 제작국 제작1CP 윤정현 △방송본부 제작국 제작2CP 강영호 △방송본부 제작국 제작3CP 류건욱

이전

■ **화남출판사**는 11월 5일자로 사무실을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377-1 로얄플라자 602호로 이전했다.(02)3142-4787
■ **사단법인 보리**(이사장 김재일)는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6번지로 사무실을 이전했다.(02)745-5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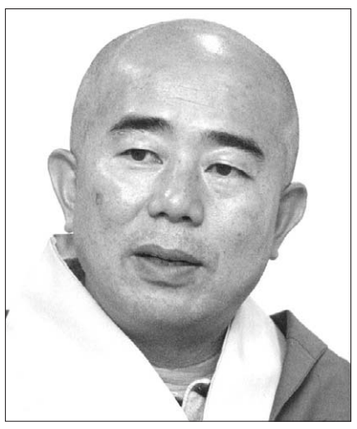
"승가대 발전 위한 소임 다할 것"

중앙승가대 후원회장 정념 스님

2009년 개교 30주년을 맞는 중앙승가대학교(총장 종범)가 명실상부한 수행 · 교육 · 연구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후원회를 결성한다.

중앙승가대학교후원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정념 스님(월정사 주지)은 "승려기본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가 미래 불교 인재양성이라는 교육 불사를 위해 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후원회 출범 계기를 밝혔다. 스님은 "현재 종단에 가장 시급한 것이 시대에 걸 맞는 승가도제교육이다. 종단의 폐단 등 제문제들은 결국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 때문"이라며 인재 불사의 관점에서 승가대 후원회 발족의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대학원생이 100여명에 이르지만 기숙사도 없는 등 환경이 열악하다"며 승가대 학인스님들의 어려운 교육환경을 예로 든 스님은 "종단의 지원이 미비한 현실에서 일정부분 이상을 후원회가 분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후원회의 모금을 통한 효과에 대해 "후원금 모연을 통해 승가대 마스터플랜에 따른 승가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중앙승가대 중장기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후원회 활동에 따라 확보된 예산은 △학인스님들의 등록금 지원 및 연구 수행 풍토 조성 △교원확보 및 연구활동 보조 △국내외 학술교류 확대 △교직원 재교육 △필요시설 건축 등에 쓰이게 된다.

"11월 20일 오후 1시 중앙승가대 대강당에서 사부대중이 참여한 발대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언론 · 사찰 · 신행단체 · 후원자 등의 동참을 확대할 것"이라고 활동계획을 밝힌 스님은 10만 대중의 풀뿌리 모금 참여를 목표로 '5000원 1구좌 갖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회를 별도의 법인이 아닌 학교법인 산하에 두도록 했으며 소액모금은 후원회 명의 통장이 아닌 학교명의 통장으로 했다"는 스님은 후원회의 투명운영과 승가대 발전을 위한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후원자들을 위한 음악회를 1년에 두 차례 정도 개최해 후원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교육불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며 후원회가 단순한 모금활동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로 대중들의 동참을 유도할 것임을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법우들에 도움 되는 신행문화 만들터"

조계사 청년회 김영선 신임회장

"법우님들의 생활 속에 불교가 녹아들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1월 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사청년회 김영선(40, 법명 혜광 · 사진)씨가 2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법회를 기점으로 2년 임기를 시작한 김 회장은 "조직효율을 높이고 피부에 와 닿는 법회만들기에 주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조계사청년회, 대한불교청년회 등에서 1996년부터 사무총장, 대의원 등을 역임하며 불교계 청년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김 회장은 조계사 청년회 문화 조성에도 힘쓸 것을 다짐했다.

우선 김 회장은 부서를 통폐합, 특성화 · 전문화시켜 부서 행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법우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치 · 종교 · 사회 · 문화 법회를 열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 회장은 현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기획실장, 불교미래포럼 운영위원 등의 직책까지 맡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불교사회복지와 사회참여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 사는 청년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봉사를 더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도 조계사 청년회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더 어려운 곳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회원간의 화합이다. 회원관리프로그램을 정비해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선배 법우 인명록을 작성하고 만남의 장을 마련하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청년회 활동은 수행과 함께 자신의 삶 속에서 병행돼야 합니다. 법우들이 자부심을 갖고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김강진 기자

"우리 목표는 한국불교의 청정성 회복"

침묵시위 펼친 중앙승가대 원우회장 각의 스님

제175회 조계종 중앙종회가 개원됐던 지난 11월 1일. 종회 의장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에서 10여 명의 스님들이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펼쳤다. 피켓에는 '부처님 법 실천하여 정법불교 이룩하자', '청정수행 결사하여 불교발전 이룩하자', '불교대중 무시하는 언어폭력 자제하라'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시위에 참여한 스님들은 '자성청정 실천대회 추진위원회' 회장 각의 스님(중앙승가대 대학원 원우회장 · 사진)과 승가대 학인 스님 그리고 불교인권위 상임대표 진관 스님이다. 학인스님 30여 명은 이에 앞서 10월 29~31일 중앙승가대에서 참회정진을 봉행한 바 있다.

각의 스님은 먼저 "부끄럽다"고 말문을 연 후 "승가의 일원으로 관음사 · 마곡사 · PD수첩 보도내용 등의 사태에 대한 죄송스런 마음에 교단 청정의 불씨를 지피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고 시위의 의의를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10월 29일 열렸던 자성청정법회 실천대회 이후 첫 번째 실천행으로 침묵시위에 나섰다"며 "이번 시위를 계기로 교단 청정의 목소리가 본 · 말사 등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앙승가대 대학원에서는 이를 위해 별도의 홍보물을 준비해 배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열린 11월 6일까지 시위를 지속한 각의 스님은 "이제 침묵시위 대신 교단 내 자성청정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전과 홍보물 배포 등의 다양한 실천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명불회, 파라미타에 후원금 전달

11월 7일 명불회(회장 박용근)가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 도후 스님에게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명불회는 불교용품 판매 · 제작 업체 13개 대표들이 만든 신행단체로, 이날 후원금 전달을 계기로 계속해서 파라미타에 청소년포교 기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도후 스님은 이 자리에서 "종단 안팎에서 청소년 포교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김윤환 회장 '부산불교시민산업대상' 수상

부산불교실업인회 김윤환 회장은 11월 6일 (사)부산포럼에서 주최하는 '부산시민산업대상' 시상식에서 독서사랑 운동 및 문화 활동 등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김 회장은 "불자인 저와 함께 신행생활을 하고 계신 도반님들이 참여해주셔서 격려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한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일붕선교종 금강계단 구족계 수계법회 봉행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총무원장 지공)은 11월 15~17일 의령 일붕사 석굴법당에서 금강계단 구족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15일 가사점안을 시작으로 진행된 종도교육과 17일 수계법회로 원만 성료된 이번 법회에는 총무원장 지공, 재단이사장 경원, 종회의장 화엄, 일붕사 주지 혜원, 교육원장 원각 스님 등 종단 임원 및 종도 150여명이 참석했다. 120여명이 계를 수지한 수계의식에서 총무원장 지공 스님은 "한국불교의 중추종단의 종도로서 또한 수행자로서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정진을 다하라"고 당부했다.(02)998-8161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후원 계좌 : 038-25-0008-365
국민은행 (예금주 에이치비엠씨)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시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 이하림) 카드결재 가능함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